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역풍' 혹은 '후폭풍'이라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론을 무시하고 야당연합이 수적 우세로 밀어 붙여 호기롭게 단행한 대통령탄핵의 후유증으로 이 말이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계적 반전 여론을 무시하고 '세계의 안전을 위하여'라는 어거지 명분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는 일년에 가까운 시차를 두고 일어난 일이고, 공간적으로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건너뛰는 거리를 두고 일어난 일이지만, 기묘하게도 두 사건의 배면에는 사건의 일맥상통 혹은 인간의 공통적 약점이라고 불려도 괜찮을 만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강자 혹은 다수는 합리하고 설득보다는 그들이 가진 배타적인 힘의 사용이라는 유혹 앞에 언제나 쉽게 노출되는 약점을 갖는다. 이 두 사건은 그 주역들이 이 유혹의 울기비에 현혹되어 일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후폭풍은 현재를 통한 벌리적인 측면과 4·15 총선을 통한 정치적 측면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역풍은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선에서 그 위력이 충분히 반영될 것



불자 세상보기

윤 세 원 인천전문대 교수

이라크 전쟁의 '후폭풍'

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전쟁 초기부터 가공할 수준의 화력을 동원하면서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개전 3주만에 바그다드를 함락시켰다. 지난 3월 20일로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개시한 지 일년이 지나갔고, 한 달 조금 후인 5월 1일이면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벌인 종전 선언 쇼를 연출한 일년이 되는 시점이다.

종전이 선언되고 부시 대통령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미국인의 지지에 환호작약하였다. 그

러나 일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9·11사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이 밝혀지고, 이라크 주둔 미군들이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매었지만, 전쟁의 명분을 정당화 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

또한 부시의 공언대로 전쟁 덕분에 세계는 테러로부터 안전해지기는커녕 상시적인 테러 공포에 시달리면서 반전 여론은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열차테러의 여파로 이라크에 파병한 스페인의 집권 국민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고 승리한 사회노동당의 사파테

로 총리 내정자는 스페인군을 6월 30일 안에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유일 초강대국의 오만 방자함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부시 행정부를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종교적 원리주의와 도덕적 결백주의 그리고 외교적 일방주의로 세계를 재단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시의 이러한 독단은 상호 의존되어 있는 세계의 실상에 대한 무지에 기인된 것이다. 때문에 그의 정책결정은 월남전의 교훈을 너무 쉽게 내팽개친 것이었고, 결프턴의 경험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가는 것 같다.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 보건대, 그는 CNN를 통하여 전세계의 안방으로 생중계 된 막강한 화력과 장비 덕분에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감수해야 할 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정당성의 뒷받침 없이 행해지는 강자의 힘은 어떠한 명분과 미사여구로 치장하더라도 그것은 폭력이다. 횡포는 정글의 법칙이고, 야만의 극치이지 문명사회의 관행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이 부시의 실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2004년 4월'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면 그것은 '여성에 의한' 정치적 혁명이 될 것이다. 대표적 보수정당인 한나라 당에서 여성 당수가 뽑히고 내각 안에서 여성각료 발령의 영향이 돌보인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어느 정당이든 여성 정치인의 약진과 활약이 어색하지 않다. 무엇보다 4월 총선에서 40-50여명의 여성이 의회에 진출할 것이라 예상되고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여성 평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불교계 현실은 어떤가. 불교대표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1만2천여 스님 가운데 비구 비구니 스님의 비율은 반반이다. 그럼에도 중앙총회위원 81명 중 비구 비구니 스님 몫은 10명.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각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에 비구 비구니 스님은 피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조차도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엔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한다. 신도단체나 포교단체에도 여성 임원의 수는 극히 적다. 조

'우먼파워'에 주목하자

계종 중앙 신도회 대의원 중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5.5%다. 한국불교계에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

양성평등은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다. 그것이 지난 시대 역사와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왜곡되고 굳어진 것이 전통과 관습이란 이름을 붙인 오늘날 불교계의 구태다. 불교가 미래종교를 자임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평등사상 뿌리 때문이다. 그런 교단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의 차별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7천여 명에 이르는 한국 비구 비구니 스님 가운데 학문적 성취도나 수행의 깊이를 널리 인정받고 세계적 인지도를 얻고 있는 분들도 많다. 올해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여성 불자대회도 이 땅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의 세계적 위상 역시 이들의 능력과 활동에 의해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불교 종단들은 이제 부처님 근본가르침으로 돌아가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서도 교단 내 양성평등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의식의 구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차별적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장자(김택스)



이렇게 들었다

불타는 집

"삼계에 편안함 없음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三界無安猶如火宅)"(법화경 비유품)

이 세상은 참으로 불타는 집과도 같다. 마음들이 이분법적으로 확실하게 갈라져버린 혼란스런 현 시국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소위 국가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안중에도 없고 자신을 정파의 세력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집이 불타고, 자식들이 불에 타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부처님은 미혹의 바다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법문했다.

"어느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다. 대문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만도 수백명이나 됐다. 어느 날 부자가 잠 시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집이 불타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이 난 것도 모르고 노는 데 정신이 팔려 그대로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놀라서 "애들아, 빨리 밖으로 뛰어 나와!"라고 고함쳤지만, 아이들은 그 고함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다시 소리쳤다. "애들아, 여기 좋은 장난감이 있다. 어서 나와서 받아라." 아이들은 장난감이란 말에 뛰어나와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

현상황에서 과연 어떤 '장난감'이 필요한가. 종교계가 정치인들의 정략에 휩쓸려 함께 부화뇌동해서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장난감을 줄 수 없다. 진정한 국민들이 바라는 장난감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투면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는 정법의 가르침이다. 또 분열되고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아 주고, 국민들을 평가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따끔한 질책의 장난감도 주어야 한다.

지금도 뜨거운 번개가 세상을 불태우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김원우(우재부 차장)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조계종 개혁을 위한 주문

'현대불교' 1면에 실린 조계종 개혁 10년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1994년 조계종 개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발 빠르게 진단하고 전달해 주셨던 시도는 옳다고 본다. 또한 조계종이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안까지 제시되어 많은 불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기회를 빌어 재가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조계종에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얘기 하고 싶다.

우선 청정할 승단의 모습을 견지해 주길 바란다. 94년 서울 조계사에서 벌어진 일들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이후 98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교를 믿는 내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수행자는 수행자다를 때 불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불교로 거듭 나는데 스님들이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다음으로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으면 한다. 현재 사찰재정을 공개하는 사찰은 극소수다. 사찰의 재산은 스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공유재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찰 재정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현실은 스님들의 세속화를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 스님들이 수행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길 기대한다. 불교의 힘이 스님의 수와 비례한 것은 아니다. 나는 진정한 불교의 힘은 우리 사회에 참스승을 많이 배출할때 생긴다고 믿고 있다. 수행을 제대로 해야 참스승도 많이 나올 수 있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중심 종단이다. 조계종이 바르게 서야 한국불교도 바르게 설 수 있다. 조계종이 불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사찰에 장애인 시설을

2년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지체장애인이다. 사고 전에는 나름대로 신심을 갖고 사찰에 다녔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는 법당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졌다. 법당에서 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들 어갈 수 있는 법당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사찰이 거의 없다. 있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법당에 들어갈 수는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법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지체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법당도 흔치 않다.

요즘 공공기관에는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새로 신축하는 사찰에는 여전히 장애인을 위

한 시설이 없다. 450만에 달하는 장애인들에게도 부처님께 참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주어지길 바란다.

김유근(서충로구 사직동)

인간 방생 나서주길

나는 공주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재소자다. 오래전부터 이 곳 교도소의 범죄 현실을 보면서 '인간 방생'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수차례 이같은 뜻을 인근 사찰과 스님, 청년회에 호소했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해마다 많은 사찰에서 연례적으로 방생 법회를 열고 있지만, 진정한 방생인 인간 방생은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일은 부처님 가르침인 이타행을 실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야말로 다이아몬드 광산보다도 빛나고 꽃보다 아름다운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불사일 것이다.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많은 사찰과 스님들이 '인간 방생'에 나서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김진형(공주교도소 재소자)

'연대' 민명

심민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중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르는 중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중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중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주택중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하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빨리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아간 : 0311706-3060

우리 가족에겐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귀족대외피재자 성광수

-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점점 추워지는 겨울! 챙기셨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월드컵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를 챙겨주세요.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론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2201-3333